

韓國의 夜來者 傳說과 日本의 三輪山 傳說과의 比較研究

張 德 順

- | | |
|---------------|-----------------|
| 一. 머릿말 | 三. 양국 설화의 관련 양상 |
| 二. 개별 연구 | 四. 문화적 性格 |
| 1. 韓國의 야래자 설화 | 五. 전파 時期 |
| 2. 日本의 三輪山 전설 | 六. 맺음말 |

一. 머릿말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韓半島와 日本 列島는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¹⁾

그래서 일찍부터 韓·日 양국이 갖고 있는 문화의 관련 양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또 많은 진척을 보아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여러 가지의 학문 외적인 목적 의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바라던 만큼의 成果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나도 이 방면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미 두어 편의 論文⁽²⁾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說話라는 전공 분야의 제한과 자료 수집의 어려움, 그리고 현지 조사의 문제점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78년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奈良 근방의 三輪山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하였었다.

이 論文은 그때 조사한 자료와, 내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夜來者 전설>⁽³⁾이란 논문을 종합하여, 韓·日 양국 설화의 상관 관계를 究明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야래자 說話」⁽⁴⁾와 일본의 「三輪山式 전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 千寬宇 편 ; 1975, pp. 57-58, pp. 178-183 참조.

(2) 장덕순 ; 1973, pp. 232-240; 1978, pp. 162-190.

(3) 장덕순 ; 1978, pp. 136-142.

(4) 야래자 전설은 하나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로 고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구전 자료를 검토하면 전설적인 것이 압도

1912년 일본 사람 鳥居龍藏가 <日韓에 分布되어 있는 三輪山的 전설>⁽⁵⁾이란 論文을 발표한 이래, 오늘날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러면, 먼저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 ① 鳥居龍藏; <日韓에 分布되어 있는 三輪山的 전설>(1912: 東亞之光)
- ② 손진태; <견훤식 전설>(1927: 新民)
- ③ 임석재; <朝鮮의 이류 교혼담>(1940: 朝鮮民俗)
- ④ 이석래; <이류 교혼 설화(설화와 문학의 방법)>(1963: 서울대학교 문리대학보)
- ⑤ 소재영; <이류 交婚巧>(1969: 국어국문학)
- ⑥ 장덕순; <야래자 전설>(1970: 한국 설화 문학의 연구)
- ⑦ 大林太良; <일본 신화와 朝鮮 신화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1977: 國文學)
- ⑧ 김화경; <한국 야래자 설화의 研究(일본의 芋環型 蛇罨入譚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一試論)>(1981: 筑波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未刊)

이상과 같은 既存 研究들은 하나같이 韓·日間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몇 편의 논문을 골라, 그것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 論文의 방법론 설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이 유형의 설화에 대해 가장 먼저 이루어진 鳥居龍藏의 연구는 설화의 비교를 통해 韓·日 양민족의 역사적 관계를 밝히려고 했었던 최초의 論文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는 일본의 「三輪山式 전설」이 大和國을 비롯하여 九州 四國 주변, 그리고 멀리 琉球의 宮古島에까지 分布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시하여 朝鮮에서 일본에 전해진 전설이라고 전제한 뒤, 「이 전설은 처음에 北方에 있었던 것이 어떤 형편에 의해 점점 남쪽으로 전해졌던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요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일본 민족의 移住·왕래 등을 연구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⁶⁾라고 하여 설화를 갖고 민족의 이동 경로를 再構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연구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韓國의 구전 자료와 日本의 문헌 자료를 같은 수준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비교했다는

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신화적인 것도 있고, 또 민담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야래자 설화>라고 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5) 이 논문은 1976년 朝日新聞社에서 출판된 《鳥居龍藏全集 1》 pp. 322-329에 재록되어 있다.

(6) 鳥居龍藏; 1976, p. 325.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손진태는 한국의 文獻 說話와 남해안 지방에서 구전되고 있는 설화들을 調査·報告하면서, 「견훤식 전설 중에도 日本의 그것과 우리의 그것 사이에는 반드시 직접 移動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鳥居 博士는 일본의 三輪山式 전설은 朝鮮을 통하여 일본에 이동되었으며, 그 전설은 양민족이 조선·일본 종족군(Koreo-japanese group)을 형성하여 X地方에 거주하던 太古로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氏는 견훤식 傳説이 회령과 성진에만 있는 것인 줄 생각하였고, 遺事와 野談같은 기록에 있는 것은 몰랐으며, 남방(남부 지방: 인용자註)에 특히 그 전설이 많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 조선의 처지로 보면 차라리 그것은 日本을 통하여 남방에 輸入되었다가 다시 강원·함경도로 이동된 것 같이 생각된다」⁽⁷⁾고 하여, 鳥居 龍藏의 說을 비판하면서 日本에서의 傳來說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推定은 일본에는 뱀에 관한 신앙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당시까지 조사·보고된 구전 자료가 南部 地方에 편재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손진태의 주장은 뚜렷한 역사적 認識이 없는 推斷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왜냐 하면, 日本에서 뱀을 男女의 先祖神으로 하는 신화는 대개 彌生 時代に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⁸⁾ 그 彌生 文化가 바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에 건너간 「外來的 要素」를 지닌 농경 문화⁽⁹⁾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진 大林太良의 연구는 「相互 解明法(Wechselseitige Erhellung)」을 사용하여 이 類型의 說話가 왕조 기원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음과, 견훤의 아버지가 日本의 오호모노누시(大物主)와 같이, 水界와 관련이 있으면서 또 山神的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兩面的인(ambivalent) 존재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日本의 三輪山型 전설은 百濟界 도래민에 의해 河內에 전해졌던 것이 아닐까」⁽¹⁰⁾하는 하나의 假說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그의 見解에 대해서는 韓文化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7) 손진태 ; 1947, p. 208.

(8) 吉野裕子 ; 1979, p. 215.

(9) 石田英一郎 ; 1955, p. 114.

(10) 大林太良 ; 1977, p. 28.

百濟界가 지나고 있는 특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先行 研究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현전하는 구전 설화를 대상으로 한 김화경의 연구는 韓·日 양국의 설화가 하나의 起點 狀況(initial situation)과 여섯 개의 보존 부분⁽¹¹⁾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韓國의 「夜來者 說話」와 日本의 「苧環型 蛇壻入譚」이 같은 계통의 설화였다고 하여, 한국에서의 日本 전파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계통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국내에만 국한시켜 論하면서, 問妻婚⁽¹²⁾의 모티브를 중시하여 「초기 古代 國家에 있어서의 原始 社會的 遺制가 고구려와 남부의 백제의 설화에도 계승되었다」⁽¹³⁾고 보아, 이 說話가 고구려적인 것이라고 추단하는 데 그친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까지 본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연구 업적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야래자 說話와 日本의 三輪山式 전설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先行 研究들이 傳播論(diffusionism)을 취할 때 반드시 考究되어야 할 역사와의 관계는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사, 이 類型의 설화가 한국에서 日本으로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說話 하나만 전해졌을 리는 없을 것이다.

문화의 전파란 반드시 한 셋트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것에 수반되는 副次的인 문제, 곧 그 文化의 성격을 비롯하여 담당 계층까지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은 再言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論文에서 夜來者 說話가 어떤 성질의 문화적 속성을 근거에 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명하여 韓·日間의 전파의 문제에 수반되는 역사적인 관계까지도 아울러 밝혀보고자 한다.

(11) 「보존 부분」이란 설화가 구전되어 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만약 이 부분이 변한다면, 그 說話 본래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상례이다.

(12) 부인이 妻家에 기거하기 때문에 男便이 처가에 다니면서 영위하는 결혼 생활의 한 형태를 말한다.

(13) 김화경 ; 1981 ②, p. 115.

二. 개별 연구

1. 韓國의 야래자 설화

지금까지 남아 있는 資料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설화는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견훤의 탄생 설화이다.

그런데, 이 견훤의 탄생 설화는 《古記》에서 인용되어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古記》는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김화경이 《古記》에서 인용되어진 《三國遺事》의 설화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밝힌 바⁽¹⁴⁾와 같이, 이 책은 일본의 《古事記》와 같은 성질의 신화집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그렇다고 한다면, 《古記》에 실려 있었던 견훤의 탄생 설화는 《三國遺事》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한반도에 전래되어 定着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단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이 유형의 설화들이 《三國遺事》의 견훤 탄생 설화와 保存 部分을 같이 하면서,⁽¹⁵⁾ 전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층 더 그 妥當性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역사가 오랜 이 설화의 내용부터 개관하여 보기로 하자.

또 古記에는 옛날에 한 부자가 光州 北村에 살고 있었는데, 딸 하나가 있었으며 모습이 단정했다.

딸이 그 아버지에게 말했다.

「매양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저의 침실에 와서 관계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일렀다.

「네가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꽂아 두어라.」

딸은 그 말에 따랐다. 날이 밝자 실을 북쪽 담 밑에서 찾아보니 바늘이 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아기를 배어 한 사내아이를 낳는데, 나이十五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

景福 원년 입자에 왕이라 일컬고 도읍을 완산군에 정했다……. ⁽¹⁶⁾

(14) 김화경 ; 1981 ㉔, pp. 111-112.

(15) 김화경 ; 1981 ㉔, p. 10.

(16) 「又古記云 昔一富人居光州北村 有一女子 姿容端正 謂父曰 每有一紫衣男 到寢交婚 父謂曰 汝以長絲貫釘刺其衣 從之 至明尋絲於北牆下 針刺於大蚯蚓之腰 後因妊一男 年十五 自稱甄萱 至景福元年壬子稱王…….」
최남선 교주 ; 1946, p. 100.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이 유형의 야래자 說話는 조선조 때에 기록된 《靑邱野談》을 비롯하여, 오늘날도 전국 각처에서 혹은 전설의 형태로 혹은 민담의 형태로 구전되고 있다.

그런데,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이 유형의 설화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사적인 인물, 곧 후백제를 건국한 建國主의 탄생과 결부되어진 것이다. 또, 현전하는 이 유형의 설화들 역시 神이라든가 非凡한 人物(英雄)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夜來者 說話의 한 단면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별건하면 다음과 같다. (17)

- ① 함북 회령 A : 老花赤(로카치 : 만주국 태조의 아버지)
- ② 함북 회령 B : 노랑지(청태조의 아버지)
- ③ 함북 회령 C : 노로치(老賴稚 : 청태조의 아버지)
- ④ 함북 성진 A : 明의 태조.
- ⑤ 함북 성진 B : 중국의 천자.
- ⑥ 함북 성진 C : 청나라의 천자.

(17) 야래자 설화의 조사 개관은 다음과 같다.

순서	전승지	조사자	출 전	발표 연대	비 고
1	함북회령 A	鳥居龍藏	東亞之光	1912	鳥居龍藏 ; 1976재인용
2	" B	鶴坡閑人	東亞日報	1926	손진태 ; 1947재인용
3	" C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1958	
4	함북성진 A	鳥居龍藏	東亞之光	1912	鳥居龍藏 ; 1976재인용
5	" B	鶴坡閑人	東亞日報	1926	손진태 ; 1947재인용
6	" C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1958	
7	평남평양	"	"	"	
8	강원평강	"	"	"	
9	강원횡성	"	"	"	
10	경기여주	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1-2	1980	
11	충남연기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의 연구	1970	
12	충남금산 A	손진태	신민	1927	손진태 ; 1947재인용
13	" B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1958	
14	전북전주	이철수	전주야사	1967	
15	전남광주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1958	
16	경북문경	조증선	영남의 전설	1974	
17	경북청도 A	최내옥	미발표		
18	" B	"	"		
19	경남동래 A	손진태	조선민담집	1930	손진태 ; 1966재인용
20	" B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1958	

- ⑦ 강원 평강 : 평강 蔡氏의 시조 蔡元光
- ⑧ 경기 여주 : 창녕 曹氏의 시조 曹繼龍
- ⑨ 충남 연기 : 貴子 혹은 마을의 神.
- ⑩ 전북 전주 : 명풍수
- ⑪ 전남 광주 : 전훤
- ⑫ 경북 문경 : 전훤

이상의 구전 설화들의 내용에서 볼 때, 이 유형의 說話에서 불가사의한 남자와 인간인 女子가 교접하여 탄생시키는 인물은 그 전승 지역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경북도 회령의 자료 A·B·C에서 태어난 아이의 머리가 노랗다고 하여 「노랑지」 또는 「노로치」라고 했다는 것은 民間 語源說的 要素가 가미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강원도 평강과 경기도 여주의 자료에서는 각각 그들 姓氏의 始祖 誕生 說話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단지 名風水로만 되어 있어, 이 說話가 전설의 형태에서 민담의 형태로 바뀌는 過渡期的인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등장 인물이 다양하게 變移되었음은 이 유형의 說話가 전승되어 오는 사이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 파생되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變移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탄생을 비정상적이었다는 점과, 建國主로서 활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說話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王朝 起源 神話的 性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구전되고 있는 說話들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이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쌍유리의 자료이다. (18)

이 說話는 내가 10여년 전에 調查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으나, 여기 다시 한번 요약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옛날 수리산의 산 발치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결혼할 연령이 되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밤마다 나타나서 자고 갔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녀는 어느 날 밤 그의 옷자락에 실을 꿰 바늘을 꽂아 두었다.

그 이튿날, 날이 밝자 그녀는 실을 따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실은 수리산의 꼭대기 가까운 곳에 멈추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커다란 뱀이 바늘에 찔려 죽어

(18) 장덕순 ; 1978, pp. 139-140.

있었다.

그녀는 그 후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貴子가 되었다고도 하고, 마을의 神이 되었다고도 한다.

이러한 전설과 함께, 그 후 그녀가 살았던 자리에 碑岩寺라는 절이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碑岩寺라는 절의 이름은 碑石과의 관련성 보다도 「뱀」 또는 「배암」이라는 말에서 轉用되어졌을 가능성이 짙다.

이렇게 볼 때, 이 전설은 절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고, 또 태어난 아이가 마을의 神이 되었다는 神話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夜來者 說話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日本의 三輪山 전설

앞에서 한국의 夜來者 說話의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것에 대응되는 日本의 三輪山式 전설에 대해서도 瞥見하여 보기로 하자.

이 유형의 설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古事記》이다. 이 책은 초기의 韓日 關係史⁽¹⁹⁾뿐만 아니라, 일본 고대사 연구에도 最古의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8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자료 批判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古事記》의 편찬자가 당시의 執權者의 支配 政策에 영합하여 자의적으로 윤색을 가한 상당한 部分이 있고, 또 歷史書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야기 책과 같은 성격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 전해지고 있는 所謂 三輪山 傳說도 《日本書紀》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종합하여 그 系統을 詳考할 성질은 못된다.

여하간, 우선 《古事記》의 崇神天皇條에 전해지는 설화의 내용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이 오호다다네고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까닭은, 위에서 말한 이구다마요리히메

(19) 일본의 古文獻들은 한국인의 측면에서 자세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둔다. 왜냐 하면, 그들의 지배 계층이 한국계 주민이었다는 최근의 고대사 연구 성과를 참조한다면, 많은 한국적인 것이 그 속에 용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 모습이 단정했는데, 이 때에 한 장부가 있어, 그 위엄스런 모습이 이에 비할 바 없었다. 밤중에 홀연히 도래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어, 함께 지내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 그 미인(이구다마요리히메)이 임신하게 되었다. 이에 그 부모가 임신한 사실을 괴이히 여겨, 그 딸에게 「네가 임신했으니, 어찌된 이유인가」하고 물은즉, 대답하기를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려한 장부가 매일 밤 와서 지내는 사이에 저절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고 하였다.

이로써 그 부모가 그 사람을 알고자 하여, 딸에게 「황토를 자리 앞에 뿌려두고, 실꾸리의 실을 바늘에 꿰어, 그 옷자락에 꽂아두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가르쳐준 대로 하여 이른날 본 즉, 바늘을 쥔 실이 문고리 구멍을 빠져 나갔으므로, 실을 따라가본즉, 미와야마에 이르러 신사(神社)에 그쳐 있었다. 그러므로, 신의 아들임을 알았다.⁽²⁰⁾

이와 같은 내용의 이 說話는 《古事記》에 의하면 「大物主神」과 관계를 가지는데 반해, 《日本書紀》에 전하고 있는 것은 「大國主神」과 「大物主神」이 同一神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日本의 神話에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하는 두 계통의 신화가 있다. 즉, 大和系統의 신화와 出雲系統의 신화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書紀》에서 이 유형의 설화가 出雲系統의 大國主神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문헌에 나타난 계통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또 《古事記》에 전해지고 있는 각각의 설화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위에 인용한 三輪山 傳說을 독립된 하나의 전승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古事記》에 기록·전승되고 있는 三輪山 傳說과 같은 내용의 「葺環型 說話」는 그 후 《平家物語》의 「緒方三郎」의 出生譚으로 정착된 것을 비롯하여, 오늘날도 「蛇簾入譚」으로서 일본의 전국 각처에 口傳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關敬吾는 아주 오랜 옛날의 어떤 한 형식의 神話를 本源으로 하여, 전설화·민담화되었으며, 몇 번의 역사적 변화와 함께, 지역적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하여, 神話→傳說→民譚의 변천 과정을 제시한 뒤, 그 역사적 변이 과정을

(20) 「此謂意富多多泥古人所以知神子者 上所云活玉依毘賣 其容姿端正 於是壯夫其形姿威儀於時無比 夜半之時儻忽到來 故相感 其婚供住之間 未經其時 其美人妊身 爾父母怪其妊身之事 問其女曰 汝者自妊 无夫何由妊身乎 答曰 有麗美壯夫 不知其姓名 每夕到來 供住之間 自然懷妊 是以前父母欲知其人 誨其女曰 以赤土散床前 以閉蘇紡麻貫針 刺其衣襖 故如教而且時見者 所著針麻者 自戶之鉤穴控通而去 唯遺麻者 三勾耳 爾即知自鉤穴出之狀而 從糸尋行者 至美和山而 留神社 故知其神子」 荻原淺男 교주 ; 1979, p. 187.

- ① 《古事記》에 기록되기 이전에, 《風土記》, 그 외의 古文獻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신화로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 ② 그 이후, 신화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하나의 전설화가 이루어져 《平家物語》 등에 기록되기까지 제 2기의 전파를 하였고, 한편 豊後를 中心으로 하여 한 지역에 고정하여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越後の 五十嵐小文治와 같은 한 지방의 영웅 탄생을 말하는 전설로서 하나의 傳説圈을 이루었으며,
- ③ 이것이 민간 신앙의 지지가 없어짐에 따라, 중심지를 떠나서 民譚(昔話)으로서 제 3기의 移動을 이룩하였으며, 각지에서 제각기 변화하였을 것이다.⁽²¹⁾

라고 推斷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推斷은 많은 문헌 자료와 구전 자료의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妥當性이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신화로서 전승되었다면, 그것이 언제 어떠한 문화를 가진 집단에 의해 日本에 전해졌는가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根本的인 問題부터 해결한 뒤,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이 과정을 살피는 것이 尙當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또 關敬吾의 推斷은 日本의 古墳文化가 독자적으로 大和地方에서 발생하여 四方으로 퍼져갔다고 주장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소비니즘적 태도⁽²²⁾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심지에서 사방으로 전파되면서 역사적인 변이를 거듭했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쉽게 수증이 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설화 자체가 일본 固有의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을 갖고 들어간 집단의 移住 經路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三. 양국 설화의 관련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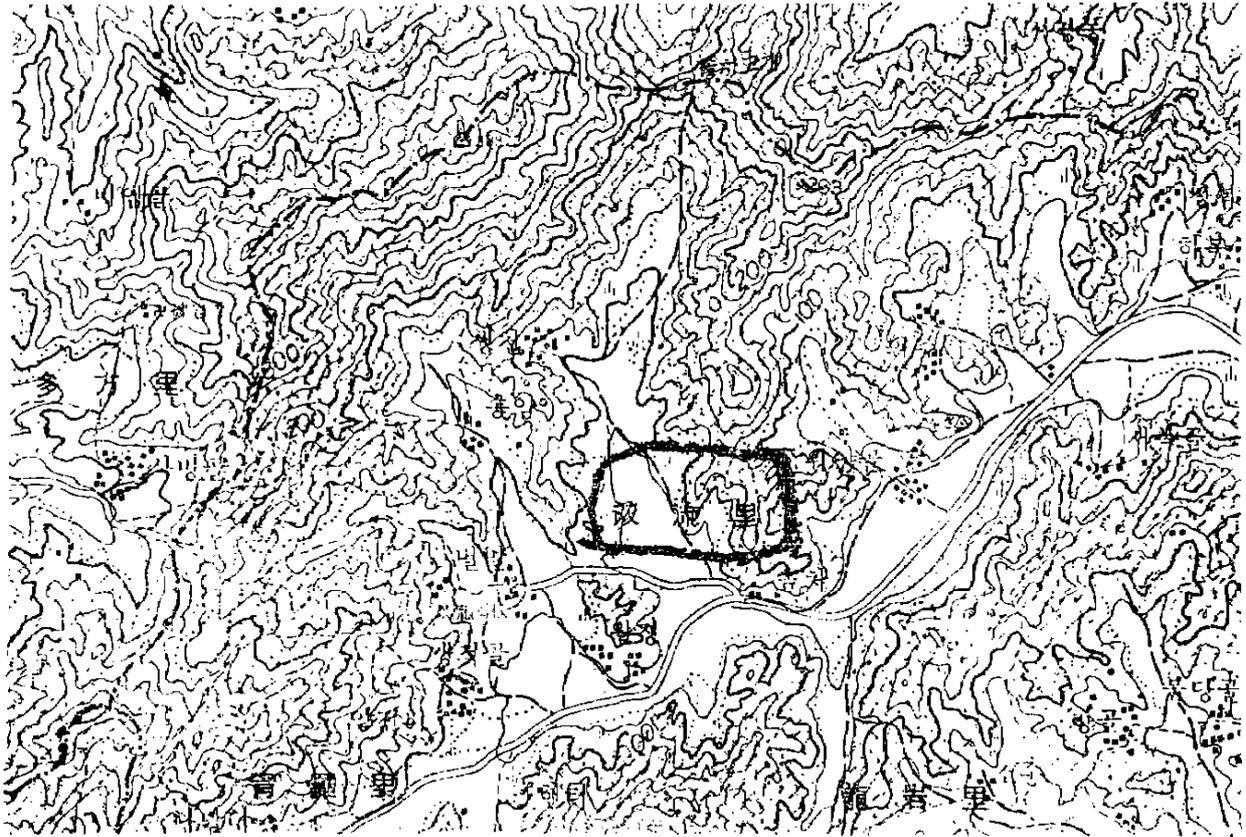
이제까지 韓·日 양국이 갖고 있는 이 유형의 설화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이들 資料 중에서 한국의 수리산 전설과 日本의 三輪山 傳説은 너무도 酷似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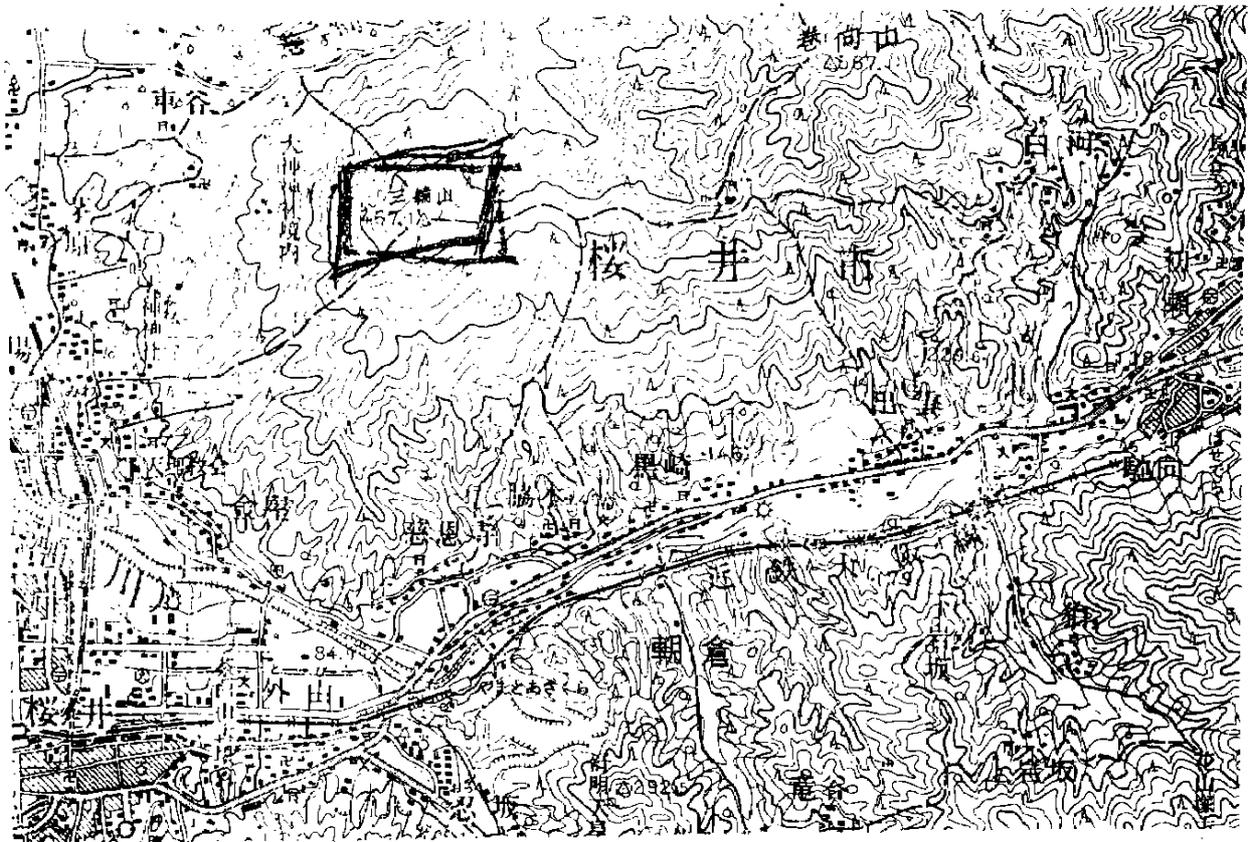
지도 1·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들 두 傳説의 고장은 우선 지형 지세부터 너무도 비슷하다. 이는 五萬分之一의 지도인데 이것을 다시 圖式

(21) 關敬吾; 1940, p. 34.

(22) 西谷直治; 1959,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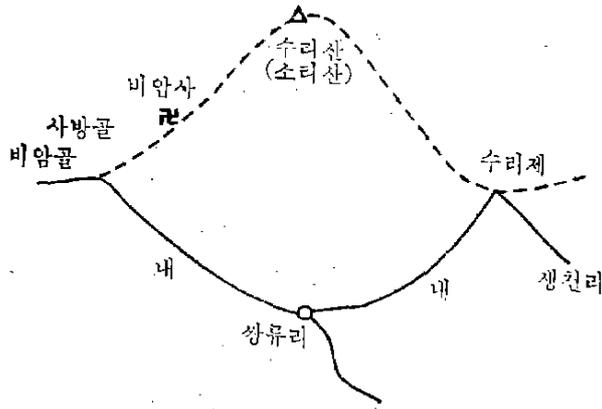
(地圖 1) 한국의 수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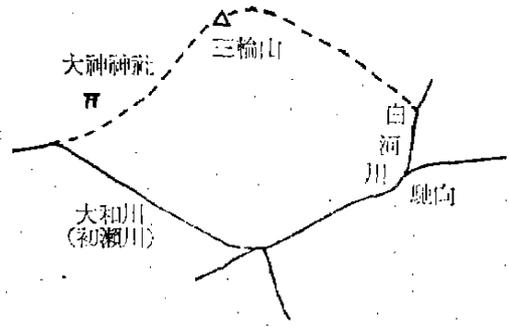
(地圖 2) 日本의 三輪山

化하여 理解에 도움이 되게 하면 지도 1'·2'와 같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쌍유리의 수리산에 얽혀 있는 夜來者 說話는 비록 口傳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유형의 설



(地圖 1') 한국의 수리산



(地圖 2') 日本의 三輪山

화들 중에서 상당한 古形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日本의 三輪山 傳説은 일찌기 문자로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三輪山 神社에 얽혀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兩國의 두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 내용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구 분	나 라	수리산설화(한국)	三輪山전설(日本)
1. 주인공		처녀	처녀(活玉依毘賣)
2. 상대자		용모 수려한 남자	美麗한 壯夫(大物主神)
3. 정체를 파악을 위한 방법의 강구자		부모	부모
4. 강구된 방법		바늘과 실	바늘과 실
5. 정체		뱀	뱀
6. 발견된 장소		수리산	三輪山
7. 출생한 아이		貴子 또는 마을의 신	神의 아들(意富多多泥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리산에 얽혀 있는 전설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없는데 반해, 三輪山の 것에는 전부 이름을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완전히 일치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酷似하다.

또 한국의 수리산의 경우에는 처녀가 살았던 곳에 비암사라는 절이 있고, 日本의 三輪山の 경우에는 산 어귀에 神社가 있는 點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내가 三輪山の 현지 조사 시, 그곳 神社의 관계자(神主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음)에게 神社의 자리에 처녀가 살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수긍하였다.

특히, 이곳 神社에서 祭(마쯔리)가 행해질 때, 절하는 방식까지 한국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듣고, 나는 더욱 한국과의 깊은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전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수리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傳説로만 전해지고 있는 데 반해, 日本 三輪山의 경우에는 산 自體가 하나의 神體라는 산악 신앙의 形態로까지 발전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民俗學的 側面에서 깊은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의 지형 지세와 說話의 내용상의 동형성으로 볼 때, 이들 兩者의 깊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四. 문화적 性格

한국의 야래자 說話가 일본에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응당 그것이 어떤 문화를 가진 집단에 의해 건너갔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本考에서는 이 유형의 說話가 갖고 있는 문화적 성격을 究明하는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說話의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女子에게 임신을 시키는 불가사의한 男子의 정체와 그가 살고 있던 場所가 아닐까 한다.

불가사의한 男子의 正體는 《三國遺事》의 견훤 설화에는 지령이로 되어 있고, 전북 전주, 전남 광주, 경북 문경, 청도의 A·B, 평남 평양, 충남 연기, 경남 동래 A·B의 자료에서는 지령이 또는 뱀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다소의 지역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뱀은 들판에 흔해빠진 보통의 뱀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王朝의 起源 神話的 性格을 지녔던 이 유형의 설화에서 神이나 비범한 인간을 잉태시키는 主體 역시 신성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中·南部 地方에서 뱀 가운데 집의 「지킴」 또는 「지키미」라고 하여 崇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령이」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본 설화는 뱀 가운데에서도 神聖性을 인정받고 있는 구령이와 깊은 관련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이 「구렁이」와 「지렁이」는 이상하게도 언어학적 一致가 엿보이고 있다.

口傳 說話들 중에서 崔來沃이 조사한 경상북도 청도의 자료에 의하면, 이 지방에서는 지렁이를 「꺼꾸렁이」 또는 「꺼꾸렁이」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명칭은 비단 청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남 지방에서도 널리 通用되고 있다. (23)

이 말은 「갯+구렁이」 또는 「갯+구렁이」로 分析된다. 여기서 「갯」이라는 접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구렁이」 또는 「구렁이」라는 말은 뱀의 그것과 일치됨을 발견할 수 있다.

여하간, 이와 같은 언어학적 일치를 보이고 있는 「뱀」과 「지렁이」가 神이나 비범한 人物을 잉태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古代 韓國人들의 신화적 사고에서는 신성스러운 동물들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뱀은 「그 펠로스적 형상과 대지에서 살고 있다는 두 가지의 이유로 풍요를 表象하는 동물」(24)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古代의 한국인들에게는 지렁이까지도 뱀과 마찬가지로 풍요와 關係를 가진 동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짙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곳, 곧 人間에게 그 정체가 탄로난 장소가 南部 地方에서는 人間 文化의 통제의 바깥 영역이었다.

아것도 또한 大地를 중시하는 농경민 문화와 밀접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大地, 그 자체는 母神, 곧 豐饒의 神이 되기 이전에도 스스로를 人間들에게 母·地母(Tellus Master)로서 나타내고 있었다. 그것이 농경화와 함께 植物과 收穫의 大女神의 觀念을 더욱 確然하게 갖게 되었다. (25)

그러므로, 原始 農耕民들 사이에는 大地에서 人間의 起源을 말해주는 많은 神話들이 發見된다. (26)

한국에서도 大地에서 人間의 起源을 말해주는 모티브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傳承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사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23) 김화경 ; 1981 ④, p.97.

(24) Kirk; 1971, p.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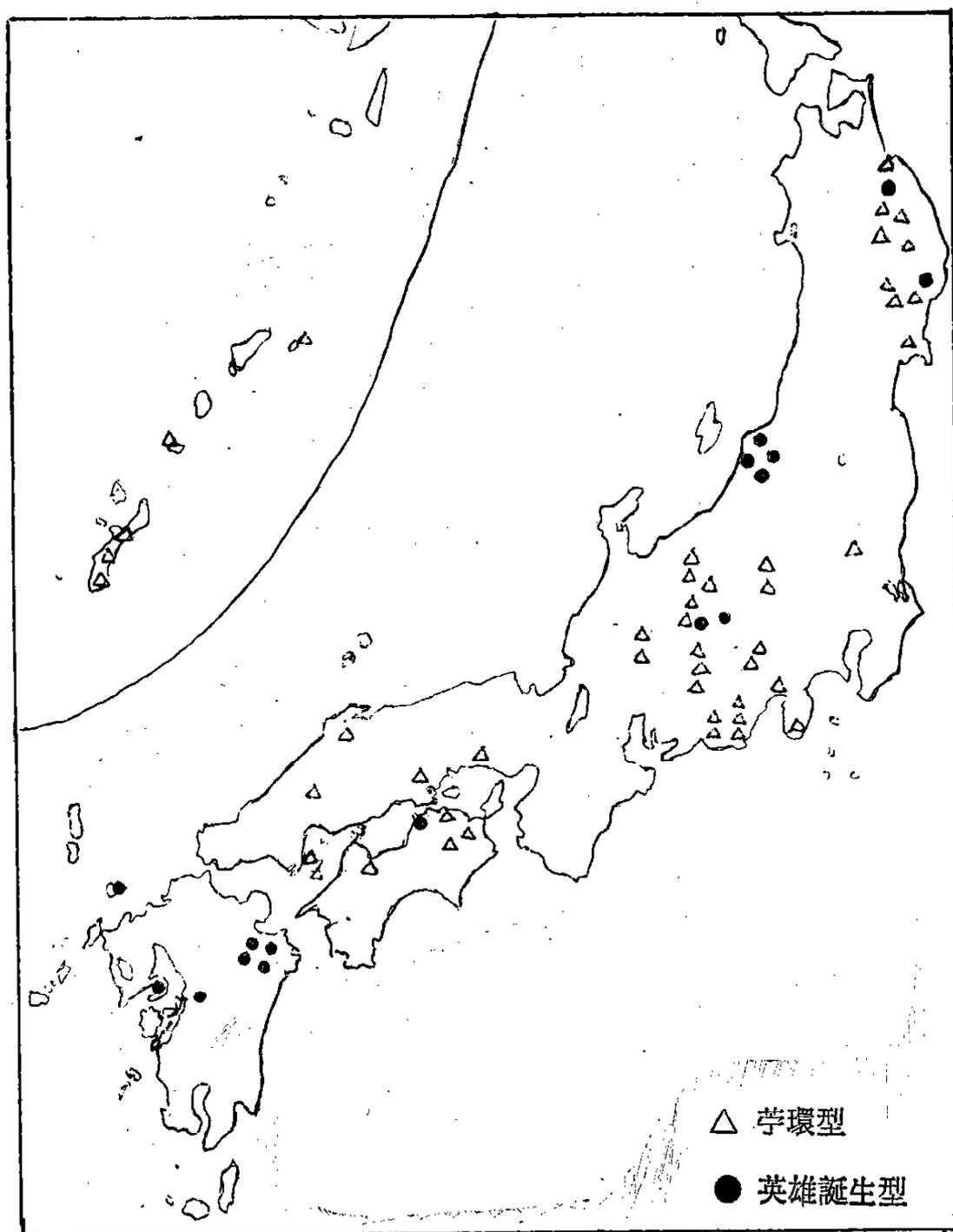
(25) M. Eliade; 堀一郎譯, 1977, pp.88~89.

(26) B. Malinowski; 1954, p.111.

이렇게 본다면, 풍요를 표상하는 지렁이나 뱀이 人間과 교접하여 神이나 비범한 인물을 탄생시키는 본 夜來者 說話는 대지에서 人間の 기원을 말해주는 신화들의 후대적 변형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설화는 그 근저에 농경 문화적인 요소를 짙게 지니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五. 전파 時期

이렇게 農耕 文化的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 類型의 說話가 일본에 전파



(地圖 3) 蛇 嚙 入 譚 分 布 圖

된 경로를 推察하는 데는 日本에 현전되고 있는 蛇聾入譚의 分布圖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關敬吾의 논문 〈蛇聾入譚의 分布〉에 제시된 지도 3⁽²⁷⁾에서 특별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英雄 誕生型」의 이야기이다.

위의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웅 탄생형의 說話는 南九州에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說話가 東南 아세아에서 海路를 통해 日本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반면에, 長岐縣의 壹岐島를 비롯하여 北九州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瀬戶內海를 따라 香川縣의 九龜地方과 奈良縣의 三輪山 지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의 깊은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口傳 說話들이 옛날 전파될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고 많은 세월의 연륜 속에서 변이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포도에서 특히 간과될 수 없는 것이 彌生 文化의 遺蹟地와의 관계이다.

주지하는 바, 北九州의 彌生 時代의 초기 유적지와 유물들은 한국으로부터의 문화적인 계승 관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南北九에서는 초기의 彌生式 土器의 발견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²⁸⁾

물론, 고고학적인 유물을 남긴 집단과 설화를 갖고 들어간 집단과의 결부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포상의 일치가 단순한 개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는 이 유형의 설화가 彌生 文化의 日本 전파와 때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하나의 假說을 제시한다.

六. 맺 음 말

나는 이 논문에서 될 수 있는 한 韓·日 양국간의 미묘한 감정적 관계를 배제하면서, 이제까지 추구해 오던 설화의 문학적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27) 關敬吾; 1940, p. 21.

(28) 金錫享(日譯); 1977, p. 69에서 재인용.

그래서, 이제까지 비교적 많은 研究 業績을 갖고 있는 아래자 설화를 선정하여, 일본을 오가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韓·日間の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이 설화가 농경민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일본에의 전파는 彌生 文化의 전파와 때를 같이 한 것이라는 하나의 가설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고고학적 발굴과 또 이 유형 설화의 보고에 따라 좀더 추고할 필요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논문이 우리 구전 설화 연구의 새로운 方向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후학들의 보다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장덕순; 1973, <太陽神話의 이동> 《文學思想》 pp.232-240.
- 장덕순; 1978, 《한국 설화 문학의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천관우 편; 1975, 《한국 상고사의 쟁점》(서울: 일조각)
- 손진태; 1947, 《한국 민족 설화의 연구》(서울: 을유문화사)
- 손진태; 1966, 《朝鮮の民話》(東京: 岩崎美術社)
- 김화경; 1981 ㉔, <韓國夜來者說話の研究> (미간행, 筑波大學大學院碩士學位論文)
- 김화경; 1981 ㉕, <아래자 설화의 구성 구조 분석> 《韓國 古典 散文의 研究》(서울: 동화출판사)
- 최상수; 1958, 《한국 민간 전설집》(서울: 통문관)
- 서대석; 1980, 《한국 구비 문학 대계 1-2》(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철수; 1967, 《전주야사》
- 김석형; 1977, 《古代朝日關係史》(일역, 東京: 頸草書房)
- 鳥居龍藏; 1976, 《鳥居龍藏全集 1》(東京: 朝日新聞社)
- 吉野裕子; 1979, 《蛇》(東京: 法政大學出版部)
- 石田英一郎; 1955, 《日本民族の起源》(東京: 平凡社)
- 大林太良; <日本神話と朝鮮神話とはいかなる關係にあるのか> 《國文學》(東京: 學燈社)
- 최남선 교주; 1946, 《三國遺事》(서울: 삼중당)
- 荻原淺男 교주; 1979, 《古事記, 上代歌謠》(東京: 小學館)
- 西谷直治; 1959, 《世界考古學大系 Ⅲ》(東京: 平凡社)
- 關敬吾; 1940, <蛇蟠入譚の分布> 《民族學研究》6-4, pp.1-34. (東京)
- M. Eliade; 堀一郎譯, 1977, 《大地, 農耕, 女性》(東京: 未來社)
- B. Malinowski; 1954, 《Magic, Science and Religion》(New York: Doubleday & Company)
- G.S. Kirk; 1971, 《Myth》(Berkeley and Los-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